

24회 4억원… 法 “이게 단순도박 이라고?”

검찰 ‘상급도박→단순도박’ 변경해 ‘약식기소’ 재판부, 검찰 주장 반려하고 ‘정식재판’으로
2016~2019년, 美서 24회에 걸쳐 3억9852만원 도박 한 혐의
재판부 “증거자료 수천 페이지... ‘상습성’ 판단 필요”
단순도박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 3년 이하 징역 등

지인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역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2·사진)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칫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주목된다.

당초 약식기소된 양 전 대표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형사9단독)는 공판 첫날부터 검찰을 상대로 ‘상습도박’에서 ‘단순도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해 기소한 배경이 뭔지를 따져물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들이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는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을 굳이 정식 재판에 부친 이유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양 전 대표의 도박 행위를 상습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가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단순도박과는 달리, 상습도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9일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김우진·이재욱 YGX 공동대표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번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호텔 카지노에서 총 24회에 걸쳐 33만5460달러(한화 3억9852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지인 금모(사임가)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2억여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규모를 떠나 횟수만 놓고 보면 피고인들이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도 이 같은 도박 횟수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특히 박수현 부장판사는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사건의 검찰 측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이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장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박 판사는 당초 상습도박으로 송치된 양 전 대표 등을 검찰이 단순도박으로 기소한 연유를 캐물으며 “이들에게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에 공판 검사는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 를 (수사 검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집요하게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가능성을 파고들자 변호인이 발끈하고 나섰다.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인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성원 기자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많아진 것은 검찰이 도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관련된) 많은 금융계좌를 추적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일일이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기됐던 횡령이나 외환관리법 위반 의혹 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상습도박과 단순도박은 처벌수위부터 전혀 다른 죄”라며 “상습도박 혐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단순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인데, 재판 도중 상습성 여부를 다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굳이 상습성 여부를 따지겠다면 수사를 재개해 달라. 아니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판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지도 추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겠다”며 “변론 종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상습도박 불기소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0월 28일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광현 기자 theseman@naver.com

신간 서적

오리진

루이스 다트넬 지음
흐름출판 펌
392쪽 20,000원



지구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지구, 나아가 우주의 환경은 우리 종(種)의 출현과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문명과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오리진’은 수많은 질문과 답으로 가득한 책이다. 영국 우주국의 과학자인 루이스 다트넬 교수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해 보자고 제안한다. 고고인류학, 역사학에 지질학, 지구과학, 해양학 등 과학적 탐구 방식을 연계해 보자는 것이다.

코로나 키즈가 온다

유종민 지음
타래 펌
267쪽 15,000원



코로나가 사람 심리와 의식, 생활양식, 소비패턴, 교육, 의료,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코로나는 동시 다발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세대를 코로나 키즈로 정의한다. 그들은 곧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이며, 미래의 우리다. 그들의 탄생부터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로 인해 바뀔 미래의 모습을 낱알이 들여다보자.

에이트 씽크

이성진 지음
차이정원 펌
444쪽 19,800원



전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인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강제로 들어섰다고 말한다. 인간이 AI에 대체되는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뜻이다. 책은 인간이 장차 AI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지혜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씽크’(Think)라고 강조한다.

‘씽크’는 사색과 연결된다. 저자는 동서양의 인문학 천재들이 보여줬던 사색공부법을 따라갈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도 AI에 끌려가는 대신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빨강의 역사

미셸 파스투로 지음
미술문화 펌
368쪽 18,000원



인류는 왜 빨강에 열광하는가. 이 책은 빨강의 역사를 다룬다. ‘빨강’은 인류사처럼 다사다난한 역사를 거쳐온 색이다. 빨강은 색의 전부였다가 배제되었고 그러다가 점차로 제 역할을 찾아나간 역사를 걸어왔다. 빨강은 색의 원형이다.

인간이 처음으로 제어하고 만들었으며 재생산했던 색이다. 현대에도 빨강은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고 금지 처벌의 뜻을 나타내면서 우아함, 상류 품목, 예우를 표시할 때 쓰이기도 한다.

팬데믹 1918

캐서린 아놀드 지음
황금시간 펌
400쪽 18,000원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2015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100년 전 팬데믹 상황이 다시 전 세계를 강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희생자 가족 인터뷰 녹취록, 일기, 회고록 등 방대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스페인 독감 전파 과정을 소개한다.

죽음에 이른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담으며 당시 현장을 복원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반면교사를 얻게 되길 바란다

파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지음
북스톤 펌
320쪽 16,000원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외식업계의 충격은 다른 업종보다 막대한 게 현실이다. 존속 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외식업에 종사하는 12명이 자신의 ‘잘 파는’ 노하우를 책으로 펴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터득한 ‘팔리는 구조의 비밀’을 인터뷰 형식으로 생동감 있게 전한다. 저자들은 ‘파는 사람들’이란 이름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구체적으로 전한다. 특별한 브랜드 만드는 컨설팅, 발상의 전환, 맛집으로 살아남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순재·신구·손숙·박정수... ‘장수상회’ 추석 공연

2·4일 세종문화회관서 4회

즐거움과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한 연극 ‘장수상회’가 추석을 맞아해 관객을 다시 찾아온다.

‘장수상회’는 10월 2일과 4일 이틀 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총 4회의 추석 특별 공연을 진행한다.

제작사 극단장수상회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관객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면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연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작품은 할리우드 영화 ‘러블리, 스틸’을 리메이크 한 강재규 감독의 동명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해 2016년 초연을 올렸다.

까칠한 노인사 ‘김성철’과 소녀 같은 꽃집 여인 ‘임금님’의 가슴 따뜻한 로맨스를 그린다.

장수상회의 오랜 모범작원이자 연예에는 숙맥인 까칠한 ‘김성철’ 역에는 이

순재·신구, 소년처럼 수줍지만 사랑에는 당찬 꽃집 사장님 ‘임금님’ 역은 손숙·박정수가 맡는다. 또 강성진, 김보현, 김지민, 김나연 등이 출연해 이들과 호흡을 맞춘다.

연극 ‘장수상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관객들을 위해 9월 20일까지 예매 시 반값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추석맞이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티켓은 인터파크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신성아 기자



이성복의 소주 한 잔



시골 맛 지켜낸 막국수,두부,수육 금학산 인근... ‘홍천 제4경’의 마무리 요리

원소리막국수, 홍천군 북방면

홍천의 유원지 길목, 대기표까지 받고 기다려야 하는 식당이다. 막국수와 수육, 두부전골 등 맛깔나고 신선한 시골집의 정성과 매력이 가득한 식당이다. 춘두부도 만들고 푸성귀도 길러 자연의 생기가 살아있다.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깻잎 무말랭이 등 철마다 달라지는 찬에 젓가락이 무섭다.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전골, 즉석에서 감자를 갈아부추 당근 넣어 부친 감자전, 한방 내음 하나 없이 정갈한 돼지수육... 팔봉산 생막걸리 반주 삼으니 금상첨화다. 막국수는 비빔으로 먹다가 육수를 더 붓고 물막국수로 끝낸다. 강원 천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맛이다. 가게 옆으로 금학산 등산로가 보인다. 홍천군의 67째미터 산세가 홍천강으로 가는 계곡마다 만들어낸 절경이 ‘홍천9경’이다. 금빛 학이 춤추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금학산(金鶴山)이다. 정상(652m)에 오르면 홍천강이 굽이치며 만들어내는 태극무늬 지형 ‘수태극(水太極)’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어 ‘홍천9경’중 ‘제4경’의 자리를 차지했다. 비벌디파크, 라비에렐CC와 가깝다. 1990년에 개업.



순서대로 알차게 먹는 닭갈비 철판볶음 체계적인 서비스 인상적

오근내닭갈비, 용산

‘맛있는 녀석들’부터 ‘미슐랭’까지 널리 알려진 닭갈비 명소에, 별관까지 갖춘 대형업소다. 생닭과 채소가 나오면 닭고기가 철판에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카레향 후추향 들어가며 휘휘 젓는다. 고구마, 떡이 먹음 만해지면 깻잎, 양배추, 파가 양념 소스에 뒤덮여 숨이 죽는다. 그때 야무지게 썰면을 볶아준다. 이때 비로소 젓가락을 집어야 한다. 가나진 기다림 동안 수저가 할 일은 콩나물국(미역국), 백김치, 파김치, 양배추 샐러드를 집어드는 것. 기본적인 반찬의 내공이 오근내(춘천의 옛이름)의 저력이다. 양파 미늘 간장 고추장 등으로 만든 담백하고 매콤한 소스가 맛의 비결이다. 초대형업소인데도 재료, 조리, 서비스에 소홀함 없이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 치즈, 고구마, 떡, 썰면사리, 날치알볶음밥... 탄수화물 세트를 순서대로 알차게 흡입할 수 있다. 계란찜과 감자전병도 곁들이고 막국수도 한 그릇 시켜 나눠먹으면 포만감이 목까지 찰 것이다. 춘천닭갈비는 숯불구이로 시작됐는데 80년대부터 철판이 등장해 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다.



음식으로 추억하는 ‘서울의 태국’ 타이 출신 요리사가 살려낸 놀라운 맛

콘타이, 서울로테라스

태국 이산지방 요리를 중심으로 한 태국요리 전문점이다. 여럿이 가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캐슈넛과 채소를 넣고 볶은 새콤달콤 샐러드부터 시킨다. 메인 요리로 부드러운 계를 튀겨 커리와 샌드림을 넣고 볶은 ‘뿌네팟퐁커리’는 태국이 아니면 먹어보기 힘든 요리다. 겹질 채로 씹히는 부드러운 깻살과 커리 소스가 은은하고 달콤한 조화를 이룬다. 새우와 허브의 신맛이 자극적인 퐁양퐁은 태국인들의 보양식 스프로, 고수 맛을 아는 사람이 라면 아주 좋아할 국물 요리다. 굴소스로 버무린 공심채(모닝 글로리)볶음도 감지처럼 동남아시아는 반찬이다. 쌀국수로는 넓은 면을 카리멜소스와 간장을 넣고 볶은 닭가슴살 쌀국수 ‘팟씨유’ 등이 있다. 볶음면엔 굴소스가 들어간다. 계살볶음밥이나 닭고기 파인애플 볶음밥을 빼놓을 순 없다. ‘쁘라뽀요랑’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 튀긴 참돔에 파인애플 소스를 뿌린 요리다. 싱아, 창등 태국산 맥주도 판다. 전국 대형몰 20여곳에 입점한 대표적 태국 음식 프랜차이즈로, 태국인 셰프가 요리를 한다고 한다.



가로수길 ‘반전’의 시장 주막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포차

해방상달주막, 신사역

가로수길은 모듬지기 화려하고 트렌디한 가게들이 점멸하는 핫 플레이스이거늘 아저 이런 주막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자... ‘강남시장’ 표지판을 단 빌딩으로 들어가면 저자거리 광장과 낯설쩍한 주막을 중심으로 여러 식당들이 자리잡고 있다. 시장이라고는 해도 식당 몇 개 뿐이지만 가로수길 술판의 ‘반전’이 아닐 수 없다. 해방상달주막은 ‘세상에 없는 메뉴 빼고 다 있는’ 포차다. 식사 메뉴를 보자. 해냈을 때 드시라고 ‘해방상’이란다. 돈까스 된장찌개 순대국 빼다 해장국 닭곰탕 부대찌개 장어뎀밥 동태탕 반계탕 자반구이... 달 땀을 때 먹는 ‘달주막’ 안주상은 밥이 빠지고 양이 늘어난다. 술 메뉴로는 하얏트와 청다오 맥주, 막걸리로 는 송명섭과 느린마을이 눈에 띈다. 요즈음은 장수파컬리의 새로운 브랜드 ‘심장생’만 있어도 충분하다. 특별한 메뉴로는 황칠나 무닭볶음탕이 눈에 띈다. 예약해야 할 듯. 간해독과 신영안정예 좋아 ‘진시황의 불로초’라고도 하는 황칠나무를 넣어 끓인다.

뉴데일경제 대표 palmddor@economynews.com